

# 기술집약형 태생적 국제화 기업(BGV)의 성공요인에 관한 문헌연구

이인규\* · 박범수\*\* · 박태웅\*\*\*

## I. 서론

### 1. 정책적 배경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신정부는 5대 국정목표의 첫째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전략으로 수립하였으며, 세부 국정과제의 내용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유형에 따라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면서 세심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YTN, 2013).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62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을 실시하면서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1946년), KOTRA(1962년), 수출입은행(1976년), 중소기업진흥공단(1979년), 한국무역보험공사(1992년) 등의 산하·유관기관을 설립하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수출지원 제도는 크게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자금지원, 무역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로 분류된다(김태형, 2011). 그 밖에도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을 매년 수상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세계적 수준의 혁신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한 유망 IT 중소기업 CEO를 선정·시상하는 ‘글로벌 IT CEO 상’을 제정하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시장 구조의 변화는 창업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세계가 확장돼 비즈니스 공간도 함께 커졌으며,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기술의 발달로 창업을 위한 초기 비용도 크게 줄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저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상황이다(조선일보, 2013). 정부차원에서도 창업과 벤처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범은 1966년에 제정한 ‘중소기업기본법’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창업촉진 및 조직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제정되었다(이재현 외, 200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근거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설립·결성되었으며, 이들 투자회사 및 조합의 직접투자를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술력은 뛰어나나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창업과 성장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개정하고, 2010년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이인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협력팀 선임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정보통신기술경영학 석박사통합과정, 042-860-5092, iklee@etri.re.kr

\*\* 박범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협력팀 팀장(책임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책 겸임교수, 042-860-1622, bspark@etri.re.kr

\*\*\* 박태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본부 연구위원(책임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정보통신기술경영학 겸임교수, 042-860-6528, taypark@etri.re.kr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23개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된 상태이며, 출연(연)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010년도에 에트리홀딩스(주)를 설립하여 기술창업의 발걸과 육성에 힘쓰고 있다.

## 2. 학술적 배경

국제제품수명주기 이론(Vernon, 1966)에 따르면 기업은 국내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후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즉, 기업의 국제화는 국내시장이 성숙해지고 포화단계에 이르러 시작되며(Caves, 1982), 해외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사업부의 해외 진출과 해외 기업과의 제휴 과정을 거쳐 범세계적으로 통합된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MNC)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Aharoni, 1966; Czinkota and Johnston, 1981). 이처럼 기존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는 성숙산업에서 성공한 대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제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러한 기업을 국제 신규 벤처기업(International New Venture, INV)(Oviatt and McDougall, 1994; 최순권 외, 2005; 원동환 외, 2009) 혹은 태생적 국제화 기업(Born Global Venture, BGV)(Oviatt and McDougall, 1999; 김형준 외, 2007; 박성준 외, 2010; 강태구 외, 2011)이라고 명명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결국 설립 초기부터 국제화를 추구하는 BGV는 기존의 단계적인 국제화 모델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Oviatt and McDougall, 1994; Coviello and Munro, 1995; Oviatt and McDougall, 1997).

BGV에는 유독 기술집약적 기업이 많은데, 김형준 외(2007)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속한 기업은 국제화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설립초기부터 국제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로 기술집약적 산업은 범세계화 된 산업인데(Korbin, 1991), 범세계화 된 시장에서 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R&D 밀집도가 높아야 한다. 그리고 R&D 밀집도가 높은 기업은 국제적인 규모의 정보 수집이 중요하고, R&D의 복잡성과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 규모만으로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힘들다(Kogut, 1991; Korbin, 1991; Kodama, 1992). 따라서 R&D 밀집도가 높은 기업은 R&D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해외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BGV가 기술집약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제화 관점에서 BGV를 분석하였을 뿐, 기술혁신 혹은 기술사업화 관점에서의 접근은 소홀한 편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집약적 BGV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BGV 성공요인에 관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기술사업화 성공요인에 관한 문헌연구도 함께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창업자는 물론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학술적 추가 연구를 위한 시사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I. 본론

### 1. BGV에 관한 문헌연구

#### 1) BGV의 정의

BGV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기업 설립 초기부터 원료, 인적자원, 자금 등의 자원을 여러 나라에서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기업으로 정의된다(Oviatt and McDougall, 1994). BGV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독일의 Hermann Simon(2008)가 내놓은 히든 챔피언이 있다. 히든 챔피언은 세계시장에서 1~3위를 차지

하거나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BGV와 개념이 비슷하나 수출액 비중보다는 세계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BGV는 매출액 규모나 대중의 인지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을 요약하면 BGV는 히든 챔피언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BGV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 마다 상이한데,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설립 시점으로 부터 국제화를 추구하기까지의 기간(time lag) 혹은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export intensity)을 가지고 BGV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표 1> BGV의 조작적 정의

연구자	BGV의 구분 기준
김형준, 정덕화(2007)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직접투자, 공동생산(마케팅), 라이선싱과 같은 높은 단계의 국제화를 추구
박성준, 임채윤, 이덕주(2010)	설립과 동시에 국제화 전략 시행
강태구, 박은경(2011)	설립 후 7년 이내에 해외매출이 발생
김유경, 신형덕(2012)	설립 3년 만에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
McKinsey & Company(1993)	설립 후 2년 이내에 해외시장 진출하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25% 이상
Madsen, Rasmussen, Servais(2000) Harveston, Kedia, Davis(2000)	설립 후 3년 이내에 해외시장 진출하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25% 이상
Zahra, Ireland, Hitt(2000)	설립 후 6년 이내에 해외시장 진출하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 이상
Knight and Cavusgil(2004)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25% 이상

## 2) BGV의 발생 배경

기업이 설립 초기부터 국제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된 배경으로는 근본적으로 경영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국가 간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운송 속도 및 품질이 향상되면서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리비용이 감소하게 되었으며(Porter, 1990),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편리하게 되었다(Rugman and Wright, 1999). 또한 범세계적으로 시장이 동질화됨에 따라 기업이 시장을 이해하기 쉬워졌으며(Hedlund and Kverneland, 1985), 인적자원 및 금융자원의 국제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화를 추구하는데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하였다(Patricof, 1989; Johnston, 1991). 창업자의 특성도 초기에 국제화를 서두르는 요인이 되는데, 창업자의 국제적 경험과 의지는 해외자원을 활용하고 해외시장의 수요 대응에 반응하여 신속한 국제화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McDougall and Oviatt, 1991; Coviello and Munro, 1992; Hoy et al., 1992; 김형준 외, 2007; 강태구 외, 2011; 김유경 외, 2012).

## 2. 기술집약적 기업에 관한 문헌연구

### 1) 기술집약적 기업의 정의

기술집약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국가와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학술적으로는 벤처기업, 신기술 창업기업, Venture Company, Small Business Venture, High Technology Small Firm, New Technology Based Firm, New Venture, Entre Firms, Risky Business, Start-up Company,

High-tech Firms, Venture Capital Backed Firms, Small Technology Firm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연구가 진행되었다(류덕위, 1999; 김완민 외, 1999).

국외문헌에서는 New Technology Based Firms(NTBFs)라는 이름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NTBF 역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Cooper(1971)는 연구개발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개척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 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Shearman and Burrell(1988)은 신산업을 개발 중인 새롭고 독립적인 기업으로 NTBF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Coeurderoy and Murray(2008)은 업력이 10년 이내인 새롭고 독립적인 하이테크 기업으로 NTBF를 정의하였고, Maine et al.(2010)은 R&D 집약적 업종에 속한 설립초기의 작은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정의를 요약하면 NTBF는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기술집약적이며, 업력이 짧은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의 계열사가 아니거나 창업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독립된 기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2> NTBF의 개념

연구자	NTBF의 정의
Cooper(1971)	연구개발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개척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 기업
Butchart(1987)	하이테크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
Shearman and Burrell(1988)	신산업을 개발 중인 신생이고 독립적인 기업
Klofsten and Jones-Evans(1996)	기업에서 일하는 사함들의 공학적 노하우와 이를 시장에 제품 혹은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기업
Candi and Saemundsson(2008)	창업자의 기술적 지식을 기반으로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새롭고 독립적인 기업
Coeurderoy and Murray(2008)	업력이 10년 이내인 신생이고 독립적인 하이테크 기업
Maine et al.(2010)	R&D 집약적 업종에 속한 설립초기의 중소기업
Candi and Saemundsson(2011)	공학과 자연과학으로부터 도출된 지식 및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개발하는 신규 사업 조직

국내문헌에서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류덕위(1999)는 벤처기업을 새로운 기술과 지식 및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장성과 모험심이 강한 기업가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김완민 외(1999)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최근의 연구는 아예 벤처 인증 기업을 표본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 법령에 따른 벤처기업의 정의 및 요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되어 있다. 본 법령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투자, 보증, 융자, 기술성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기업형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혹은 특정 금액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하며,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벤처기업협회, 2013).

## 2)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류덕위(1999)는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먼저 벤처기업은 첨단기술혁신을 통하여 지식·정보 중심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한다.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신소재, 전자, 의료·생명공학 등의 미래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첨단 분야의 산업구성 비중을 높이고 있다.

둘째 벤처기업은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기업가 정신의 발휘의 장이 된다. 실제로 벤처기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와 소득 창출 효과가 전통산업보다 월등히 높으며, 특히 정보통신·생명공학 등의 첨단산업에 도전하면서 부가가치 창출 및 성장효과가 크다.

셋째 벤처기업은 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내생적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다. 대기업의 경우 성장거점이 지방에 있더라도 생산된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역외 유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넷째 벤처기업은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 벤처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사업화로 출시된 신제품 및 신서비스는 관련 산업에 적용되면서 기술수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벤처기업이 전통산업의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산업구조화에 일조하기도 한다.

### 3. 기술집약형 BGV의 성공요인

#### 1) BGV 성공요인에 관한 문헌연구

권영철(2004)은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벤처기업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고, 국제화가 성장성을 제고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트워크 측정 지표로 사용된 네트워크 수와 다양성 모두 국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국제화와 성장성 간에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준 외(2007)는 기업성과, 기업역량, 마케팅 전략 관점에서 BGV와 Non-BGV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업역량 속성 중 지식활용 능력, 창업멤버의 해외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마케팅 전략 속성 중에는 품질 차별화 전략, 가격 우위 전략, 시장 다양화 전략, 초기 시장 진입 전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외(2010)는 수출 상위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한 후 설립과 동시에 세계화전략을 시행한 기업을 BGV로 정의하고 나머지 기업을 Non-BGV로 분류하여, 집단 간에 국제화 전략 핵심성공요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BGV는 ‘진출국 문화지역 지식활용’, ‘제품의 고품질 및 저가격’, ‘CEO의 적극적 관심’, ‘제휴 합작 기업과의 공조’, ‘해외 전담조직역량’을 Non-BGV보다 더욱 중요시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강태구 외(2011)는 국내 BGV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능력, 동태적 역량, 기업가 지향성, 지식형태가 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네트워크 능력에서는 조정능력, 관계능력, 상대기업에 대한 지식이, 동태적 역량에서는 조정역량, 학습역량, 변화역량이, 기업가 지향성에서는 위험감수성과 지취성이 국제화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의 보유 여부에 따라 국제화 수준에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김유경 외(2012)는 문화콘텐츠라는 특수한 산업에서의 사례연구를 통해 BGV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BGV가 갖는 차별적 특성을 산업 환경적 요인, 경영자 요인, 기업 역량 요인, 그리고 네트워크 요인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이를 사례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Nordman and Melén(2008)은 바이오 산업에 속한 8개 태생적 국제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자 및 관리자의 국제화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자사 제품에 대한 기술적 경험지식 수준이 해외 시장기회를 발견하는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night and Cavusgil(2004)은 미국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적 기업가 지향성과 국제적 마케팅 지향성이 사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업 전략으로서 국제적 기술 우위, 독특한 제품 개발, 품질 차별화, 현지 유통망의 역량 활용이 해외시장에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Chen and Martin(2001)은 기업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미국 전자부품 회사가 경영성과와 국내시장의 규모가 작아질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Harveston et al.(2000)는 설문조사를 통해 점진적

으로 국제화를 달성한 기업의 경영진과 태생적 국제화 기업의 경영자 간의 특성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태생적 국제화 기업의 경영진은 점진적 국제화 기업의 경영진보다 세계 중심적인 (geocentric) 자세를 갖고 있고, 국제적 경험이 많으며, 위험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Zahra et al.(2000)는 BGV를 대상으로 국제화 다양성과 국제화 진출 유형이 기술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학습이 기업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화 다양성이 높고, 인수와 기업설립과 같이 높은 통제수준의 국제화 진출일수록 조직적 학습의 기회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의 성과는 기술적 학습에 의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기술집약적 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문헌연구

정강욱(2006)은 출연(연)에서 창업한 연구기반 스피노프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성공요인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도출된 성공요인으로는 창업자의 기술적 역량, 자금 및 기술 조달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의 권리성과 완성도,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계 및 사업 기능별 시스템화와 같은 내부 프로세스의 구축, 전문 경영인의 유치, 그리고 시장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당 제품의 수요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지성권 외(2002)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외부 지원이 부족한 부산지역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요인으로는 창업자 특성, 외부적 지원, 조직의 특성, 마케팅 지향성, 경영전략을 사용하였다. 박정민 외(2004)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전략, 경영환경, 최고경영자 의지와 같은 경영특성 요인이 외부기업과의 협력체계, 기술개발, 재무적 자원과 같은 성공요인과 재무적·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상혁(2012)은 국내 테크노파크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술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적 지향성은 기술사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쟁의 강도는 조절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ter et al.(2006)는 대학 스피노프 기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네트워크 역량(network capability)과 기업가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네트워크 역량은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었지만, 기업가 지향성은 경쟁우위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aloghirou et al.(2004)는 그리스 제조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적 특성과 기업이 보유한 자산 및 동태적 역량(dynamic capabilities)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소기업군과 대기업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의 산업집중도, 기업의 변화역량,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및 재무적 자산이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arter et al.(1994)는 6개의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한 2,500개의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벤처기업의 전략 속성 6가지를 도출하였는데, 도출된 속성으로는 가격, 장소적 차원, 서비스, 기술, 시장 조사, 차별화가 있다. Candi and Saemundsson(2008)는 북유럽에 위치한 NTBF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창업자의 특성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디자인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자가 기술기반의 학위를 받을수록 디자인적 요소를 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자의 영업 및 마케팅 경험이 높을수록 디자인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u and Wang(2007)은 대만의 NTBF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자원, 동태적 역량, 경쟁력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NTBF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동태적 역량과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술집약형 BGV의 성공요인

분류	성공요인	연구자	연구유형
창업자 및 경영자의 특성	국제화에 대한 비전	박성준 외(2010); 조연성 외(2010); 김유경 외(2012); Barkema and Vermeulen(1998); Harveston et al.(2000)	BGV
	국제화 경험지식	김형준 외(2007); 강태구 외(2011); 김유경 외(2012); Reuber and Fisher(1997); Barkema and Vermeulen(1998); Harveston et al.(2000); Nordman and Melén(2008)	BGV
	시장 경험지식	지성권 외(2002); 윤문섭(2004); Roure and Keeley(1990); Candi and Saemundsson(2008)	NTBF
	기술적 역량 및 경험지식	Nordman and Melén(2008); 강태구 외(2011)	BGV
		정지용 외(2002); 정강욱(2006); Sapienza and Clercq(2000); Candi and Saemundsson(2008)	NTBF
	국제적 기업가 지향성	강태구 외(2011); Crick and Jones(2000); Harveston et al.(2000); Knight and Cavusgil(2004)	BGV
기업가 지향성	서상혁(2012); Covin and Slevin(1989); Lumpkin and Dess(1996)	NTBF	
산업·시장 환경적 요인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	김유경 외(2012); Chen and Martin(2001)	BGV
	시장 수요의 증가	정강욱(2006); McDougall et al.(1994)	NTBF
동태적 역량	조정 역량	강태구 외(2011)	BGV
		지성권 외(2002); 박정민 외(2004); 정강욱(2006); Teece et al.(1997); Walter et al.(2006); Wu and Wang(2007)	NTBF
	학습 역량	김형준 외(2007); 강태구 외(2011); Zahra et al.(2000)	BGV
		박정민 외(2004); Teece et al.(1997); Wu and Wang(2007)	NTBF
변화 역량	강태구 외(2011)	BGV	
	Teece et al.(1997); Caloghirou et al.(2004); Wu and Wang(2007)	NTBF	
네트워크 능력	조정 능력, 관계 능력, 파트너기업에 대한 지식 등	권영철(2004); 박성준 외(2010); 강태구 외(2011); 김유경 외(2012); Zahra et al.(2000)	BGV
		정강욱(2006); Walter et al.(2006); Wu and Wang(2007)	NTBF
	모태기관과의 네트워크	정강욱(2006); Ndonzuau et al.(2002)	NTBF
경영 전략	기술 우위	박종훈 외(2004); Knight and Cavusgil(2004)	BGV
		정강욱(2006); Carter et al.(1994); Lockett et al.(2005)	NTBF
	제품 차별화	김유경 외(2012); Burgel and Murray(2000); Zahra et al.(2000); Knight and Cavusgil(2004)	BGV
		Johannisson(1986); Carter et al.(1994)	NTBF
	품질 우위	김형준 외(2007); 박성준 외(2010); Knight and Cavusgil(2004)	BGV
		Roure and Keeley(1990); Larson(1991); Wu and Wang(2007)	NTBF
	가격 우위	김형준 외(2007); 박성준 외(2010)	BGV
		지성권 외(2002); Carter et al.(1994)	NTBF
	조기 시장 진입	김형준 외(2007); 박성준 외(2010)	BGV
		Roure and Keeley(1990); Wu and Wang(2007)	NTBF
	시장 맞춤	김형준 외(2007)	BGV
		Carter et al.(1994)	NTBF
현지 유통망의 역량 활용	김유경 외(2012); Knight and Cavusgil(2004)	BGV	

### 3) 기술집약적 BGV의 성공요인 도출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BGV의 성공요인과 기술집약적 기업의 성공요인을 <표 3>와 같이 통합하였다. 성공요인은 창업자 및 경영자의 특성, 산업·시장 환경적 요인, 기업의 동태적 역량, 네트워크 능력, 경영 전략으로 구분하였는데, 많은 부분에서 동일 혹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BGV의 연구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기술집약적 기업이기 때문에 BGV를 분석하면서 기술집약적 기업에 관한 문헌을 활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화 경험지식(BGV 성공요인)과 시장 경험지식(NTBF 성공요인)이 있다. 국제화 경험지식이란 해외사업에 대한 경험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험으로

정의되는 시장 경험지식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경영자가 빠른 의사결정과 위험감수 능력을 보유할수록, 즉 기업가 지향성(NTBF의 성공요인)이 높을수록 설립 초기에 해외진출을 시도하기 때문에, 위험 수용적이며 능동적으로 국제화 활동에 나서는 성향으로 정의되는 국제적 기업가 지향성(BGV 성공요인)도 기업가 지향성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창업자의 특성 중 국제화에 대한 비전과 현지 유통망의 역량을 활용하는 경영 전략은 국제화 시 고려해야할 성공요인이었으며, NTBF가 스펀오프 기업인 경우에는 모태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한 성공요인이었다.

### III. 결론

올해 초 출범한 신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창업·벤처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부흥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국제화를 추구하는 태생적 국제화 기업(BGV)의 성공요인을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함과 더불어, BGV의 대부분이 기술집약적 기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기술집약적 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각 성공요인들을 통합하여 기술집약형 태생적 국제화 기업의 성공요인을 정리하였다.

#### 1.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BGV와 기술집약적 기업 각각의 성공요인을 정리하였다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관점에서 도출한 성공요인을 통합하여 하나로 정리한 자료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창업자 혹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이자 추가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 문헌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성공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성공요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성공요인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례연구 혹은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태구, 박은경 (2011), “한국 태생적 글로벌기업의 국제화 수준 결정요인 -네트워크 능력, 동태적 역량, 기업가 지향성, 지식을 중심으로”, 「KAIBM & POSRI 2011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49-264.
- 권영철 (2004),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이론으로서 네트워크우위론의 정립과 검증”, 「벤처경영연구」, 7(2): 77-104.
- 김완민, 신영경 (1999),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대한경영학회지」, 20: 103-127.
- 김유경, 신형덕 (2012), “문화콘텐츠 산업의 태생적 국제화 기업 성공요인: 국악공연기업 (사)문화마을 들소리의 국제화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16(1): 215-242.
- 김태형 (2011), “수출지원제도와 수출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 한국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형준, 정덕화 (2007), “ ‘본글로벌(born global)전략’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특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7(3): 39-59.
- 류덕위 (1999), “대전권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특성분석과 활성화 방안”, 「산업경제연구」, 12(2): 443-464.
- 박성준, 임재윤, 이덕주 (2010), “국내 태생적 글로벌 벤처기업(BGV)의 세계화 전략에 관한 실증분석”, 「대한산업



- 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2: 503-507.
- 박영렬, 박정민, 송운아 (2009), “코스닥 벤처기업역량이 국제화정도와 범위에 미치는 영향”, 「벤처경영연구」, 12(3): 67-90.
- 박정민, 나상균, 정호일 (2004), “벤처기업의 경영특성이 성공요인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7(5): 2069-2089.
- 박종훈, 이호욱 (2004), “최고 경영진 다양성과 기업 국제화 수준: 국제 제휴의 매개 효과”, 「국제경영연구」, 15(2): 1-29.
- 벤처기업협회 (2013), “벤처확인 : 벤처등록요건”, <http://www.venture.or.kr/> (2013.04.27.).
- 서상혁 (2012), “혁신형 기업들의 기업가적 지향성과 기술사업화”, 「기술혁신학회지」, 15(4): 862-880.
- 원동환, 조연성 (2009), “국제신규벤처기업의 내·외부적 요인이 시장지향성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13(4): 145-171.
- 윤문섭 (2004), “벤처기업의 창업자 배태조직 및 경험유형에 따른 기업성과의 차이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재현, 고승희 (2009),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7): 333-340.
- 정장욱 (2006), “연구기반 스피노프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론 및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9(4): 654-687.
- 정지용, 차민석, 배종태 (2002), “배태조직 및 창업자 특성이 벤처기업 창업과정에 미치는 영향”, 「벤처경영연구」, 5(2): 61-92.
- 조선일보 (2013), “스마트폰 보편화돼 창업 適期... 회사 1개 생기면 5개 분야(홍보 등 관련 분야)에 일자리”, (2013.03.28.), A4면.
- 조연성, 박근호 (2010), “기업가정신과 보유역량의 국제신벤처기업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14(4): 119-143.
- 지성권, 김정교, 최종서, 신종국, 최수형 (2002), “벤처기업의 성공요인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 부산 지역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 「대한경영학회지」, 15(3): 119-150.
- 최순권, 김정포 (2005), “국제신생벤처기업(INV)이론 관점에서의 한국벤처기업의 국제화 현상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18(6): 2729-2751.
- Aharoni Y. (1996), *The Foreign Investment Decision Proces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arkema, H. G., Vermeulen, F. (1998), “International expansion through start-up or acquisition: A learning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1): 7-26.
- Burgel, O., Murray, G. C. (2000), “The International Market Entry Choices of Start-Up Companies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8(2): 33-62.
- Butchart, R. I. (1987), “A new UK definition of the high technology industries”, *Economic Trends*, 400: 82-88.
- Caloghirou, Y., Protopogrou, A., Spanos, Y., Papagiannakis, L. (2004), “Industry-Versus Firm-specific Effects on Performance; Contrasting SMEs and Large-sized Firms”, *European Management Journal*, 22(2): 231-243.
- Candi, M., Saemundsson, R. (2008), “Oil in water? Explaining differences in aesthetic design emphasis in new technology-based firms”, *Technovation*, 28(7):464-471.
- Candi M., Saemundsson R. (2011),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esthetic design as an element of new servic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28(4): 536-557.
- Carter, N. M., Stearns, T. M., Reynolds, P. D., Miller, B. A. (1994), “New venture strategies: Theory development with an empirical bas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1): 21-41.
- Caves, R. E. (1982),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n, R., Martin, M. J. (2001), “Foreign expansion of small firms; The impact of domestic alternatives and prior foreign business involve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6): 557-574.
- Coeurderoy, R., Murray, G. (2008), “Regulatory environments and the location decision: evidence from the

- early foreign market entries of new technology-based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9: 670-687.
- Cooper, A. C. (1971), “Spin-offs and technical entrepreneurship”,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18(1): 2-6.
- Coviello, N. E., Munro, H. J. (1992), “Internationalizing the Entrepreneurial Technology-intensive Firm: Growth Through Linkage Development”, *The Babson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INSEAD, France.
- Coviello, N. E., Munro, H. J. (1995), "Growing the entrepreneurial firm: networking for international market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9(7): 49-61.
- Covin, J. G., Slevin, D. P. (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 75-87.
- Crick, D., Jones, M. V. (2000), “Small High-technology Companies and International High-technology Markets”,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8(2): 63-85.
- Czinkota, M. R., Johnston, W. J. (1981), "Segmenting U.S. firms for export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9(4): 353-365.
- Harveston, P. D., Kedia, B. L., Davis, P. S. (2000), “Internationalization of Born Global and Gradual Globalizing Firms: The Impact of the Manager”, *Advances in Competitiveness Research*, 8(1): 92-99.
- Hedlund, G., Kverneland, A. (1985), “Are strategies for foreign markets changing? The case of Swedish investment in Japan”,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15(2): 41-59.
- Hoy, F., Pivoda, M., Machrle, S. (1992), “A virus theory of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The Babson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INSEAD, France.
- Johannisson, B. (1986), “Network Strategies: Management Technology for Entrepreneurship and Change”,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5(1): 19-30.
- Johnston, W. B. (1991), “Global Work Force 2000: The New World Labor Market”,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115-127.
- Klofsten, M., Jones-Evans, D. (1996), “Stimulation of technology-based small firms - A case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Technovation*, 16(4): 187-193.
- Knight, G. A., Cavusgil, S. T. (2004), “Innovation,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nd the Born-Global Fir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5(2): 124-141.
- Kodama, F. (1992), “Technology Fusion and the New R&D”,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70-78.
- Kogut, B. (1991), “Country capability and the permeability of border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S1): 33-47.
- Korbin, S. J. (1991),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global integr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S1): 17-31.
- Larson, A. (1991), “Partner networks: Leveraging external ties to improv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3): 173-188.
- Lockett, A., Wright, M. (2005), “Resources, Capabilities, Risk Capital and the Creation of University Spin-out Companies”, *Research Policy*, 34(7): 1043-1057.
- Lumpkin, G. T., Dess, G. G.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n the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adsen, T. K., Rasmussen, E., Servais, P. (2000), *Advances in International Marketing: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born globals and other types of exporters*, 247-265, Bingley: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Maine, E. M., Shapiro, D. M., Vining, A. R. (2010), “The role of clustering in the growth of new technology-based firms”, *Small Business Economics*, 34: 127-146.
- MCDougall, P. P., Covin, J. G., Robinson, R. B., Herron, L. (1994), “The effects of industry growth and

- strategic breadth on new venture performance and strategy cont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7): 537-554.
- McDougall, P. P., Oviatt, B. M. (1991), “Global start-ups: New ventures without geographic limits”, *The Entrepreneurship Forum*, Winter: 1-5.
- McKinsey & Company (1993), *Emerging exporters : Australia's high value-added manufacturing exporters*, Melbourne: Australian Manufacturing Council.
- Ndonzuau, F. N., Pirnay, F., Surlemont, B. (2002), “A stage model of academic spin-off creation”, *Technovation*, 22(5): 281-289
- Nordman, E. R., Melén, S. (2008), “The impact of different kinds of knowledge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Born Globals in the biotech business”, *Journal of World Business*, 43(2): 171-185.
- Oviatt, B. M., McDougall, P. P. (1994), "Toward a theory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5(1): 45-64.
- Oviatt, B. M., McDougall, P. P. (1997), "Challenges for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Theory: The Case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37(2): 85-99.
- Oviatt, B. M., McDougall, P. P. (1999), *Research in Global Strategic Management: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ccelerated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23-40, Stamford, CT: JAI Press.
- Patricof, A. (1989), “The internationalization of venture capital”,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4(4): 227-230.
- Porter, M.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 Reuber, A. R., Fisher, E. (1997), “The Influence of the Management Team's International Experience on the Internationalization Behaviors of SM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8(4): 807-825.
- Roure, J. B., Keeley, R. H. (1990), “Predictors of success in new technology based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4):201-220.
- Rugman, A. M., Wright, R. W. (1999), *Research in Global Strategic Management Series Vol.7 –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Globalization of Emerging Businesses*, Stamford, CT: JAI Press.
- Sapienza, H. J., Clercq, D. D. (2000), “Venture Capitalist-Entrepreneur Relationships in Technology-Based Ventures”, *Enterprise and Innovation Management Studies*, 1(1): 57-71.
- Shearman, C., Burrell, G. (1988), "New technology-based firms and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Some employment implications", *New Technology Work Employment*, 3(2): 87-99.
- Simon, H. (2008), 「히든 챔피언 : 세계 시장을 제패한 숨은 1등 기업의 비밀」, 서울: 흐름출판.
- Teece, D. J., Pisano, G., Shuen, A. (1997), “Dynamic Capabilities and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7): 509-533.
- Vernon, R.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0(2): 190-207.
- Walter, A., Auer, M., Ritter, T. (2006), “The impact of network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university spin-off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4): 541-567.
- Wu, L. Y., Wang, C. J. (2007), “Transforming resources to improve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firms: A Taiwanese Empirical Study”,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24(3): 251-261.
- YTN (2013), “박근혜 당선인 “중소기업 지원, 맞춤형 정책 필요””, (2013.01.27.), [http://www.ytn.co.kr/\\_ln/0101\\_201301271630295889](http://www.ytn.co.kr/_ln/0101_201301271630295889)
- Zahra, S. A., Ireland, R. D., Hitt, M. A. (2000), “International expansion by new ventures firms: International diversity, mode of market entry, technological learning, and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5): 925-950.